

드라마 제작의 알파와 오메가 - 4

드라마 제작에서 기술 staff의 역할

: 종합편집, 스튜디오 카메라감독

글. 김태홍 MBC 제작기술국 영상기술부 조명감독

연재 목차

- 1회. 기술감독, 영상감독, 녹화감독
- 2회. 조명감독
- 3회. 음향감독, 사운드믹스, 음향효과
- 4회. 종합편집, 스튜디오 카메라감독

종합편집

기본 개요

종합편집 업무는 기본적으로 4개의 파트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드라마 편집에 참여하고 있다. 4가지 파트의 업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드라마 완제품 종합편집실 내부

최종 편집 업무

편집의 마지막 단계로 1차 편집실에서 넘어 온 파일(테이프)에 타이틀과 드라마 내용에 필요한 자막, 음악을 삽입시켜 완제품을 만든 뒤 미디어 스테이션을 통하여 방송 준비실(송출 파트)로 보내는 업무를 말한다.

편집실에는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과 영상 및 음향을 담당하는 편집감독(Edit Director) 등 엔지니어 2명과 연출자 또는 조연출, 음악 오퍼레이터나 음악감독 등이 완제품 제작에 참석한다.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 제작 프로듀서가 참석하기도 한다. 일일극의 경우 완제품을 만드는 시간은 비교적 일정하지만 미니시리즈의 경우 낮은 대본과 촉박한 촬영 일정 등으로 인한 방송 당일 종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방송 전날에 제작을 하는 주말이나 일일극 등은 파일 기반인 서버로 완제품을 만드는 편이고 방송 당일 종편을 하는 미니시리즈의 경우 테이프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색 재현(Color Grading) 업무

야외나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다 사실감 있게 구현하는 작업을 말한다. 보다 나은 색 재현을 하려면 야외 촬영 시 편집 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RAW 촬영으로 제작해야 보다 완벽한 색 재현이 가능하다.

즉 색 재현실에서 원본에 색을 입힐 수 있는 광량이 많아야 연출자가 원하는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드라마에서는 촬영 전에 연출자와 색 재현 담당자(컬러리스트), 촬영 감독이 수시로 회의를 거쳐 색 재현과 촬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고 시범적인 촬영과 테스트를 해야 한다. 색 재현 작업을 하는 사람은 컬러리스트(colorist)라고 칭하고 새롭게 부각되는 신종 편집 업무로 부상하고 있다.



색 재현 장비

야외 장면은 색 재현실에서 연출이 원하는 색으로 재탄생된다.



색 재현 전후

사진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동영상으로는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특수영상 업무

특수영상팀의 가장 주된 업무는 'VFX'라고 말할 수 있다. VFX란 시각적인 특수 효과(Visual FX)를 말한다. 존재할 수 없는 영상이나 촬영 불가능한 장면 또는 실물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이용되는 기법과 영상물을 통틀어 칭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제작을 뜻하는 CG(Computer Graphic)는 VFX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스튜디오나 야외에서 제작한 영상을 보다 사실감 있고 완성도 있게 수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연장이나 객석의 관중이 적을 때 특수 효과를 이용하여 많은 관중을 만들거나 길에 없는 자동차를 여러 대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특수한 경우 연출팀과 함께 야외 현장에 가서 주변을 고화질로 촬영해 해당 화면의 특수 영상 제작 시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드라마의 메인 타이틀을 제작하기도 하고 조연출이 준비한 예고에 대한 제작도 참여한다. 매일 방송되는 드라마의 메인 타이틀의 경우 대략 3~4일 정도 소요된다.



조선 시대 궁궐을 재현한 장면

부수적으로 마이크 그림자나 마이크의 노출 그리고 연 기자가 입은 상표 로고나 야외 녹화 시 주변의 특정 상가의 간판을 지우거나 없애는 작업과 새로운 로고를 삽입시키는 작업도 진행한다. PPL도 경우에 따라서 계약된 시간보다 많은 노출 시 일부 지워서 방송하기도 한다.



MBC 일일 드라마 《엄마의 정원》의 낮 장면

CG 작업 전으로 하늘 부분이 스튜디오 천장으로 인해 어둡다.



특수영상실에서 CG 처리한 후의 낮 장면

CG 작업 후 맑은 날의 하늘 영상과 합성하여 현실감있는 영상을 재현한다



녹화 중 마이크가 노출된 화면



특수영상실에서 마이크를 지운 화면



드라마 내용과 맞지 않은 시간대의 전자시계가 노출된 화면



특수영상실에서 시간을 지운 화면

미디어스테이션 업무



미디어스테이션실

파일 기반의 제작 워크플로우에서는 야외나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소재(테이프 또는 파일)들이 모든 편집 장비들을 공유하는 중앙의 공유 스토리지로 저장되어야 하며, 미디어스테이션에서는 이러한 소재들을 공유 스토리지에 프로그램별로 할당된 영역에 저장하고 편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집 장비에 파일을 등록해 주는 작업을 한다. 또한 편집이 끝난 파일을 각 워크 그룹(색 재현실, 특수영상제작실, CG실, 종합편집실 등)으로 용도에 맞는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여 전송해 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야 한다. 특히 녹화 시 장시간(10시간 이상) 카메라에 장착되어, 모니터하는 뷰파인더의 상태가 카메라의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사용할 레일이나 원격 조정 크레인(지미집) 등에 대한 확인을 녹화 전에 점검해야 한다.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의 대수는 카메라감독이 결정하고 기술감독이나 영상감독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3대의 스탠다드 카메라와 2대의 EFP 카메라를 사용하는 드라마가 일반적이고 보다 다양한 샷과 앵글을 위해 특수한 렌즈를 별도로 사용하기도 한다.



카메라 워킹(트러킹)

카메라 트러킹 시 스튜디오 바닥에 마이크 붐 스탠드, 조명 스탠드, 바닥에 깔린 각종 케이블 등이 없어야 보다 안정적인 워킹이 가능하다



5대의 스튜디오 카메라

카메라 조정 준비 중인 스튜디오 카메라, 3대의 스탠다드 카메라와 2대의 EFP 카메라로 구성



카메라 감독의 아이패드 대본

연출자가 콘티를 작성하여 인쇄사로 보내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관련 스태프에게 메일 전송하여 다운받아 보게 된다

스튜디오 세트의 확인

세트 평면도를 우선 확인한 후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이 카메라의 동선이다. 스탠다드 카메라는 EFP 카메라보다 카메라의 본체가 크기 때문에 샷을 구현하는 세트 주변의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세트와 세트 사이의 공간이 적절한지 그리고 카메라를 비롯한 마이크 붐 스탠드와 조명 스탠드의 운용에 대한 공간도 함께 체크한다.

드라이 리허설

드라이 리허설은 주로 오전에 실시한다. 카메라 감독은 콘티에 의한 연기자의 동선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자가 어느 위치에서 연기할 때 가장 이상적인 샷이 구현되는지를 파악하며 위치를 수정, 보완한다. 이때 연출자가 구성한 콘티에 대해서도 조금씩 수정을 하기도 한다.



나무 그림으로 장식한 벽체 세트



카메라로 주방 모습을 잡기 위하여 왼쪽의 그림을 제거한 상태



스튜디오 EFP 장비 밀차

드라마 시작 전 카메라 운용팀은 EFP 카메라에 사용할 각종 액세서리 장비(부감샷을 운용할 사다리, EFP 카메라용 트라이포트 등)를 스튜디오로 반입



카메라 사다리 부감대 상부 모습



사다리에 올라가 부감샷을 잡고 있는 카메라감독

샷의 높이는 사다리의 높이를 조절하여 운용

세트의 보완 요청

주로 카메라의 폴샷 시 세트 상단부의 노출과 연기자의 프로필 샷을 보다 나은 정면 샷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좌우 세트에 구멍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감독이 정확한 위치 선정을 해 주어야 한다. 세트의 구멍은 액자 등으로 막아 처리하기도 한다.

카메라 셋업맨의 역할 (카메라 보조)

1대의 카메라에 1명의 카메라 셋업맨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3대의 스탠다드 카메라와 2대의 EFP 카메라를 사용하면 5명의 카메라 셋업맨을 사용해야 한다. 이 인원은 최종적으로 제작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카메라 셋업맨은 녹화 시작 전에 카메라 창고의 카메라의 케이블을 분리해 본체를 스튜디오로 옮긴 뒤 카메라 케이블을 카메라 번호 순서대로 스튜디오에 정리 포설한다. 리허설 때 대본에 체크된 콘티와 카메라 위치에 이상이 있다면 카메라감독과 협의하여 카메라 콘티를 수정하거나 카메라 위치를 변경하기도 한다. 리허설 이후 카메라 조정 시 스튜디오의 상시 조명을 모두 오프 시킨 후 그레이 차트를 설치해 카메라 조정을 진행한다. 기계적인 영상과 피부톤 조정이 끝난 카메라와 부조정실과 카메라 인터컴의 통화 상태와 뷰파인더의 영상 상태를 영상감독과 크로스 체크 확인 후 카메라감독에게 전달한다.

녹화 시에는 대본과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카메라감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카메라 케이블이 서로 엉키지 않게 운용을 한다. 리허설 때 체크된 부감용 사다리나 EFP 카메라의 사용 시 필요한 카메라 부속 장비를 준비해 신속하게 준비한다. 녹화 종료 후에 EFP 카메라를 먼저 별도의 장소로 옮긴 후 스탠다드 카메라 파워를 오프시킨 다음 케이블을 분리하여 먼저 창고에 정리한 후 카메라 렌즈의 캡을 반드시 닫은 후 창고로 옮긴다.



카메라 창고 내 정리된 케이블

케이블은 엉키지 않게 아라비아 숫자 8의 형태로 엮어서 정리

EFP 카메라의 사용 시 필요한 카메라 부속 장비를 준비해 신속하게 준비한다. 녹화 종료 후에 EFP 카메라를 먼저 별도의 장소로 옮긴 후 스탠다드 카메라 파워를 오프시킨 다음 케이블을 분리하여 먼저 창고에 정리한 후 카메라 렌즈의 캡을 반드시 닫은 후 창고로 옮긴다.

진행감독(FD)과의 관계

드라마에서 카메라감독과 진행감독은 스튜디오 분위기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스태프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이해를 하며 일을 해야 한다. 연기자의 감정과 진행 스케줄에 대한 조정, 소도구의 준비와 휴식 시간 등 스튜디오 전반적인 모든 일에 FD와 카메라감독은 항상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부조정실 스태프와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FD와 조율해 절제된 내용의 대화가 필요하다.

소도구와의 관계

소도구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샷에 노출되어야 하고 카메라 감독은 연기자의 연기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도구를 활용한다. 특히 걸쳐잡기(일본어로 '데마에', 카메라 렌즈 앞에 소도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시 세트 주변의 각종 소도구를 활용한다. 그리고 연기자의 배경이 되는 그림이나 소도구 등이 카메라 샷에 빠지거나 이상하게 보이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해 보다 나은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 특히 협찬 물품이나 PPL의 경우 담당자와 상의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화면에 노출이 되도록 협의해야 한다.



데이프를 상표를 가진 비타민 PPL 제품

조명감독과의 관계

카메라와 조명은 영상을 연출하는 아주 밀접한 파트이다. 즉 연기자에게 빛을 비추어야 카메라가 원하는 샷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조명보다는 분위기 조명 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조명과 카메라 샷이 동시에 만족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며 세트에 설치된 액자나 라이그로시 장롱, 냉장고의 빛 반사 시 카메라의 위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해 주기도 한다. 카메라의 이동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변경이 가능하나 조명 등 기구의 이동과 변경은 카메라보다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빈번하게 등장하는 장롱의 조명으로 인한 빛반사. 카메라의 위치 조정이나 장롱의 문 각도를 조절해 처리를 하는 편이다

영상감독과의 관계

부조정실의 영상감독과는 녹화 시작 전 인터컴의 송수신 여부와 카메라에 부착된 뷰파인더 상태에 대하여 체크하고 녹화 시에는 카메라 아이리스(조리개)에 대하여 상의한다. 영상감독의 조리개 개방 여부에 따라 카메라 감독의 포커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영상에서 아이리스를 많이 개방하면 카메라감독이 포커싱을 맞추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이다. 드라마 녹화에서 아이리스의 개방에 따른 합의는 영상감독, 카메라감독, 조명감독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